

판사·범죄자 1인2역 자라목 교정 힘들었죠



윤시윤, '친애하는 판사님께' 출연
이유영과 호흡 '즐겁게 촬영했죠'
법정드라마 틀 벗은 유쾌한 표현

배우 윤시윤(32)이 1인 2역에 도전한다. 윤시윤은 SBS TV 새 수목극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 판사와 전과 5범의 쌍둥이 역할을 맡는다. 그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쓴다든가 하는 전형적인 1인 2역 연기 대신 인물의 표정과 자세로 다른 두 인물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는 실전 법률을 바탕으로 통쾌한 판결을 내리는 '불량 판사'의 성장기다. 윤시윤이 연기하는 전과 5범 한강호는 우연한 계기로 형이자 판사인 한수호를 대신해 법정에 서게 된다. 그는 "제가 자라목이 있는데 강호를 표현할 때는 목을 굽히고 수호를 연기할 때는 교정기를 써서 몸을 폈다"고 설명했다. 윤시윤은 다른 법정 드라마와 '친애하는 판사님께'의 차별점도 강조했다. 그는 "강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본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며 "전정영화에서 화자가 어린아이면 상황이 단순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애하는 판사님께'에서는 강호가 그 아이의 시선으로 상황을 본다. 마치 아이의 시선으로 본 것과 같은 법과 정의가 드라마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시윤은 TV조선 '대군-사랑을 그리다' 이후 휴식 없이 차기작으로 '친애하는 판사님께'를 택했다. 빠른 복귀에 대해 윤시윤은 "사랑과 작품이 똑같다. 둘 다 기다림이고 인연이다. 빨리 인연이 찾아



왼쪽부터 윤시윤, 나라, 이유영, 박병은.

왔기 때문에 빨리 차기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군에서는 정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강호는 에너제틱하다. 에너지가 넘치는 원숭이 한 마리처럼 표현하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윤시윤의 상대역은 배우 이유영(29)이 맡았다. 이유영은 악바리 사법연수생 송소는 역할을 통해 지상과 첫 주연에 도전한다. 윤시윤은 이유영과의 호흡에 대해 "이유영 씨를 연기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첫 촬영부터 기대했다"며 "이유영 씨랑 연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고 칭찬했다. 이유영도 "제가 오히려 뒷받침받고 있다"며 "윤시윤 씨의 1인 2역 표현이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한

다.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영은 "법정극이지만 어렵지 않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다"며 "자신이 존경하는 판사가 실제로는 전과 5범인 줄 모르고 바라보고 다가가는 송소은도 관련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윤시윤과 이유영 외에 박병은, 나라, 성동일, 김혜옥 등이 출연한다. 영화 '7급 공무원', '해적', 드라마 '추노', '더 패키지' 등을 집필한 천성일 작가가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 '가면' 등을 연출한 부성철 PD가 손을 잡았다. '훈남정음' 후속으로 7월 25일 첫 방송 예정. /연합뉴스

윤도현·하현우 음악예능 '이타카로 가는 길'

tvN 15일 오후 첫 방송
'방탄소년단' 등 노래 커버



윤도현(왼쪽)·하현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커 두 명이 tvN의 음악 예능으로 뭉쳤다. YB의 윤도현과 국카스텐의 하현우는 tvN '이타카로 가는 길'에 출연해 터키에서 그리스 이타카 섬까지의 여정을 보여준다. 이들은 오직 SNS에 올린 노래 영상 조회 수만으로 여행 경비를 얻는다. 윤도현과 하현우는 지난 4월 터키로 출국해 매일 인기곡 커버 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DNA', 워너원의 '에너제틱' 등 그동안 록커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노래까지 어쿠스틱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했다. 지금까지 '이타카로 가는 길'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에는 20여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조회 수는 총 350만 번이 넘는다. 방송에서는 SNS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음악들도 나온다. 윤도현과 하현우의 여정은 가수 이홍기와 소유, 개그맨 김준현이 일자별로 합류한다. 윤도현은 11일 서울 마포구 삼암동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곡을 다양하게 하려다 보니 방탄소년단과 워너원의 곡을 커버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방탄소년단 팬클럽)"라

고 밝혔다. 앞서 JTBC의 음악 예능 '비긴어게인'에서 외국으로 떠나 버스킹을 한 경험이 있는 윤도현은 "'이타카로 가는 길'은 '비긴어게인'과는 달리 버스킹이 아니라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하는 점이 다르다"며 "'이타카로 가는 길'은 음악보다 여정이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현우는 "직접 PD에게 '이타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을 통해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도현 형님은 쉬려고 하셨지만 제가 형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15일 오후 6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유병연 사망 미스터리 ... 14일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주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로 결방했던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4년여 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유병연 세모그룹 회장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온다.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변사체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변사체가 유 회장의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최대 18일 만에 사람이 빠란 남은 백골의 상태로 부패할 수 있느냐는 의문부터, 발견된 시신의 자세나 발견 당시 정황을 놓고 유 회장이 살아있었다거나 시신이 바뀌어진 뒤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란에도 유 회장의 죽음에 대해 들어온 제보 건수만 100건이 넘을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큰 상황이다. 이에 제작진은 유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복원하기 위해 그동안 외부에 굳게 닫았던 안성 금수원을 찾아 당시 그의 도피를 도왔던 구원파 신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 회장의 죽음 이후 한 번도 언론에 나선 적 없는 김엄마, 운전기사 양씨, 이 교수 등이 카메라 앞에서 당시 도피 과정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 제작진은 또 법근종학 실험과 법의인류학 분석을 통해 유 회장의 사망 시점을 검증했다. 오는 14일 밤 11시 15분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러시아 3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TV소셜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리와 안아줘(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숨터(재)	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인형의 집(재)	00 12 MBC 뉴스 20 이별이 떠났다(재)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2018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25 MBC스포츠 남북통일농구대회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5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35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하이라이트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25 판다랑 55 푸리가 식사교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비밀과 거짓말 (재)	00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15 도봇 V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0 할머니네 똥강아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UHD 한식의 마음(재)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 (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인사이드	55 할머니네 똥강아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숨터	00 당신의 하우스헬퍼	00 이리와 안아줘	00 훈남정음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이불 밖은 위험해	10 김여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4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세상의 모든 다큐	3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의 길 (우리는 무적의 돌격대)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이! 하나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9:00 레이디버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19:50 배워서 남줄라(재)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9 황허(黃河)2 4부 중원(中原)의 영웅호걸〉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로보가 폴리	21:30 한국기행 〈슬기로운 여류생활 - 산에 사노라면〉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다큐 시선
08:45 랄랄라 뽀우	15:15 파프리카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00 두다다쿵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09:30 원더보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5:05 지식채널e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5:10 과학 다큐-비온드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뽀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갑자 취나물수프와 프렌치 토스트〉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관심을 끄는 일이 생길리다. 48년생 작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60년생 모순과 단처 투성이이다. 72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근히 진행 되어질 수도 있다. 84년생 근본적인 부분부터 살피는 안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1, 72</p>	<p>午 42년생 합세해야 물리칠 수 있다. 54년생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66년생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면책할 길을 찾아라. 78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라. 90년생 무리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91, 81</p>
<p>丑 37년생 고민이 해소 된다. 49년생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61년생 알려져 있는 것이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73년생 요절 복통할 노릇이다. 85년생 냉철한 이성에서 비롯된 생각은 실익을 도모하리라. 행운의 숫자 : 43, 31</p>	<p>未 43년생 선형을 인식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넘어간다. 55년생 균형 있는 안배를 해야겠다. 67년생 대처해 나아가는 방식과 기교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 79년생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다. 91년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현실화 된다. 행운의 숫자 : 71, 44</p>
<p>寅 38년생 분석해야 하느니라. 50년생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라. 62년생 취지는 좋으나 무리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74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86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45</p>	<p>申 44년생 활용만 잘 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56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다. 68년생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80년생 모면하고자 한다면 근본원인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92년생 고통의 끝에 달콤한 열매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3, 16</p>
<p>卯 39년생 그동안 품어 왔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1년생 더할 나위 없었다. 63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75년생 발전적인 충돌 양상을 피고 있음을 감안 하자. 87년생 친신만고 끝에 난공불락이 정평하리라. 행운의 숫자 : 63, 82</p>	<p>酉 45년생 궁한 처지에 있던 이가 특효약을 얻는다. 57년생 전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69년생 집착하지 말고 대담하게 넘어가자. 81년생 체계를 잡고 요령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93년생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다고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2, 36</p>
<p>辰 40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52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64년생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76년생 도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시기이다. 88년생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기대해 볼만하다. 행운의 숫자 : 25, 11</p>	<p>戌 34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46년생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겠다. 58년생 판도는 자신만을 기다려 주지 않느니라. 70년생 오늘 반드시 실행하자. 82년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2, 48</p>
<p>巳 41년생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53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65년생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77년생 준비해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액땀을 흘릴 것이다. 89년생 손발이 적적 맞아서 순조로움을 더 하겠다. 행운의 숫자 : 32, 42</p>	<p>亥 35년생 파격적인 방향으로의 선회가 시급하다. 47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이다. 59년생 잡자코만 있으면 된다. 71년생 구원이 명관이다. 노물이 새것보다 낫다. 83년생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08, 57</p>